

# 호암상에 '나노과학 대가' '말라위의 나이팅제일'

삼성그룹의 호암재단이 1일 '2015년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박사(53·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57·미국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57·서울대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58)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53)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되어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37명의 심사위원회의 업적 평가와 국제적 명성을 가진 해외 석학(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노벨상 수상자 2명 등 해외 저명 석학 4명이 호암상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검증 수준을 더욱 높였다.

과학상을 받은 천진우 박사는 세계적인 나노 분야 대가다. 나노물질

과학상 천진우 박사  
공학상 김창진 박사  
의학상 김성훈 박사  
예술상 김수자 작가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  
(왼쪽부터)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하고 설계한 나노입자 크기를 조절하여 MRI 조영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했다. 또한 생체 나노스위치를 개발하여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등 나노과학을 의학 분야와 성공적으로 접목시켰다.

공학상을 받은 김창진 박사는 '전기 흡윤기술의 창시자'로 불린다. 액체의 흡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의 제어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액체와의 마찰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노 사이즈의 바늘구

조 표면을 개발해 적은 에너지로도 움직이는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학상을 받은 김성훈 박사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다.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ARS)가 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에 관여한다는 새로운 사실과 이 ARS들이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아울러 인체 내의 암 억제 단백질들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술상을 받은 김수자 작가는 '보따리' '바늘여인' '호흡' '지수화풍' 등의 현대미술 시리즈를 통해 자신

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하였다. 평면·입체 설치미술을 비롯해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간, 공간, 삶과 예술의 의미와 관계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개념미술 작가로 꼽힌다. 뉴욕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 비엔날레와 국제 전시 무대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다.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백영심 간호사는 '말라위의 나이팅제일'로 불린다.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오며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여 세계 각국 의료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내며 연간 20만명을 치료하는 의료기반을 구축

했다.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현지에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세워 원주민 계몽에도 힘쓰며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호암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삼성 회장의 인재제일주의와 사회공익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선발해 1990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한국의 노벨상'을 지향하는 호암상은 올해 25회까지 총 127명의 수상자들에게 199억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호암재단은 시상식을 전후한 5월 29일과 6월 2일에는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이 참여하는 '제3회 호암포럼'을 개최한다. 김대영 기자